

기아 광주공장 '신형 스포티지' 첫 양산...노사 성공 다짐



7일 박래석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과 박봉주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신형 스포티지' 1호차 양산을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아 제공)

신차 5세대 플 체인지 모델...미래지향적 디자인 호평

스포티지 1993년 첫 출시...전세계 600만대 이상 판매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사 업장을 대표하는 준중형 SUV(스포츠 유틸리티차) 신형 스포티지가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1993년 처음으로 출시된 스포티지는 그간 꾸준한 성능 향상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600만대 이상 수출된 호 자 모델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7일 2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광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차 '신형 스포티지' 1호차 양산 기념식을 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노사가 함께 탄생시킨 신형 스포티지의 성공적인 양산을 기

념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기아 오토 랜드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에 서 마련했다.

새롭게 탄생한 '스포티지'는 2015년 출시한 4세대 모델인 'The SUV 스포 티지'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플체인지 모델이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실내 공간은 기아의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인 '영감을 주는 움직임(Movement that inspires)'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래석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은 기념식을 통해 "신형 스포티지는 오토랜드 광주의 환한 미래를 위한 모

두의 간절함과 소망이 응축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신형 스포티지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명차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지"고 말했다.

박봉주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은 "오늘은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탄생시킨 스포티지가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노조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신형 스포티지가 이전 스포티지의 바통을 잘 이어 받아 광주공장을 대표하고 나아가 기아를 대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 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남양유업, 영업정지 위기 면했지만...‘산 넘어 산’



남양유업은 지난 4월 발효유 '불가 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연구 결과 발표 후 3개월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유제품 40%가량을 생산하는 세종 공장은 영업정지 2개월 위기를 면해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홍원식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 러난 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 됐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쟁사인 매일유업 댓글 비방 관련 검찰 기소 여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처

매일유업 댓글 비방·주가 조작 혐의

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전남 세종 공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 종시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과 원유수 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체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는 게 세종시 설명이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한다.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 인 점을 근거로 과징금 총 8억286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남양유업은 매일유업에도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명 의로 "2019년 매일유업 유기농 제품

과 생산 목장을 대상으로 홍보대행사 를 이용해 인터넷 맘 카페, 포털 게시 판 등에서 근거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하 지 않도록 전사적 윤리 규정을 강화하 고 마케팅, 영업활동, 대행사 운영에 서 준법 경영을 실시하겠다"면서 "임 직원 교육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한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 아이디 수십 개를 만들어 카페 등에 '매일유업 상 하목장 원유를 납품하는 고창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 영 향이 있을 것'이란 내용의 댓글을 달 았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4월 홍 전 회장 과 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홍 전 회장 포함 남양유업 임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 다.사과문 게재는 한앤컴퍼니에 매각 하기 전 매일유업과 합의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사퇴 전부터 잘못을 인정하 고 수차례 사과,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는 게 매일유업 입장이다. 업 계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과문 게재는 늦은감이 있다"며 "매일유업이 사과를 수용해 명예훼손 혐의는 일단 락 됐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이와 상 관없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검찰 기소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양유업은 주가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불가리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연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과도한 마케팅 으로 주가를 조작할 의도는 전혀 없 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자본시장 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은행 KJ카드 '여름 이벤트' 눈길

다음달 15일까지 개인카드 고객대상 다양한 혜택 제공

광주은행은 오는 8월15일까지 KJ 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열 치 ~YOL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신용카드와 개인체크카드이다.

광주은행은 이벤트 기간 내 모든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1000명에게 GS칼텍스와 롯데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 5000 원부터 최대 2만원권까지 제공한다.

또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명을 선정,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일일이용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내 신용카드로 결제 시 나주 중흥위탁은 본인 35%, 동반 3

인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환승 급호아쿠아나는 본인과 동반 1인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는 본인과 동반 1인까지 30% 할인이 주어진다.

'이열 치~YOLO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응모해야 한다.

광주은행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KJ카드만의 시원한 혜택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이열 치~YOLO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객과 지역민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 진행 과 신상품 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제네시스 최초 전기차 'G80' 출시...주행거리 427km·제로백 4.9초



제네시스가 7일 브랜드 최초의 전 기차 'G80'을 출시했다.

G80은 제네시스의 첫번째 고급 대형 전동화 세단이다. 내연기관 모 델 파생 전기차인 G80은 고급 편의 사양은 물론 뛰어난 동력성과 전 기차 특화 신기술을 대거 적용해 높 은 상품성으로 전동화 시장에 새로 운 기준을 제시한다. 판매가는 8281 만원(전기차 세제혜택 반영 및 개별 소비세 3.5% 기준)이다.

G80은 고효율·고효율 전동화 (PE) 시스템으로 강력한 동력성과 과 전용 전기차 수준의 1회 충전 주 행 거리(AER)를 갖췄다. AWD(사륜 구동) 단일 모델로 운영되는 G80은 최대 출력 136kW, 최대 토크 350Nm

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는 전륜과 후 륜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출력 272kW(약 370PS), 합산 최대 토크 700Nm(71.4kgf·m)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9초(스포츠모드 기준, 자체 연구소 측정 결과)만에 도달하 는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G80의 복합전비는 19인치 타이 어 기준 4.3km/kWh다. 87.2kWh의 고전 압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 대 427km(산입부 인증 수치)를 주행 할 수 있고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22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10%에 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V2L 등 전기차 전용 신기술 적용

제네시스는 G80의 전·후륜에 각 각 탑재되는 모터, 감속기, 인버터를 일체형으로 구성, 무게를 줄이고 부 피를 최소화했으며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전륜에 모터와 구동축을 주행상 황에 따라 분리하거나 연결할 수 있 는 디스커넥트 구동 시스템(DAS)을 탑재해 2WD와 AWD 구동 방식 을 자유롭게 전환함으로써 불필요 한 동력손실을 최소화하고 주행 효 율성을 높였다.

또 전기차 전용 디자인의 그릴 및 휠, 전면 범퍼 하단부 휠 에어 커튼 을 적용하고 완전 평면형 차체 하부 를 구현, 가솔린 2.5 터보 모델 대비 개선한 공력성능을 기반으로 전비 경쟁력과 고속 주행 안정성을 확보 했다.

강력한 동력성능을 뒷받침해줄 우수한 제동성능과 전기차에 특화 된 충돌 안전성도 G80의 특징이다.

G80은 적용된 통합형 전동식 부 스터(IEB)는 우수한 제동 응답성으 로 최적의 제동감을 물론 높은 회생 제동량을 통한 전비 증대 효과도 갖췄다. 이와 함께 전륜 콘티넨탈 모노 블러 켈리퍼(4P)와 후륜 대구경 브레이크 디스크를 기본화해 안정적

인 제동력을 확보했다. 고객의 운전 성향에 맞게 브레이크의 제동감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 모드'를 탑재했다.

브레이크 모드를 '컴포트'에서 '스 포츠'로 변경 시 일상 주행 구간에서 더욱 민첩한 제동성능을 느낄 수 있 다.

제네시스는 G80에 경량 소재를 적용하고 부품의 개수를 최소화하 면서도 설계를 최적화했다. 이를 통 해 G80 내연기관 모델 대비 전동화 모델의 차체 강성을 17% 높여 탑승 객과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 충돌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분산 시켜주는 전방 구조물과 승객을 안 전하게 보호하는 서브 프레임을 적 용해 충돌 안전성을 강화했다. 아울 러 차량 측면 충돌 발생 시 운전석 과 동승석 승객 간의 충돌에 의한 상해를 줄여주는 앞좌석 센터 사이 드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다.

G80은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시스템 ▲V2L(Vehicle to Load) ▲솔라루프 ▲스마트 회생 시스템 ▲i-PEDAL 모드 등 전기차 특화 사 양을 대거 탑재해 고객에게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기동취재본부

생수 대신 '우리집 보리차' 마신다



1만9천 세트 판매

우리집 보리차는 국내산 보리와 물 외에 어떠한 향이나 보존료도 사용하 지 않는다. 최신 음료 제조공법인 아 셉트(무균총전) 방식으로 생산한다. 원료 맛과 향, 영양을 최대한 유지하 고 제품 안전성을 높인다.

'맛있는 물'을 콘셉트로 생수와 같은 가격대와 포장 형태로 출시한 점도 인 기 요인으로 꼽힌다. 1.5ℓ 페트 제품으 로 가정에서 넉넉하게 즐길 수 있다. 친환경 생수와 마찬가지로 날병에 라 벨을 부착하지 않았다. 6개 묶음에 손 잡이를 부착해 운반 편의성을 높였다. 가격도 생수 가격대에 맞춰 가성비 를 추구하는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하이트진로음료 '우리집 보리차'가 누적판매량 약 2만세트 돌파를 앞두 고 있다.

7일 하이트진로음료에 따르면, '블랙보리' 확장제품인 우리집 보리차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를 시작 한 지 약 한 달 만에 누적판매량 1만 9000세트(1.5ℓ 6개입)를 넘어섰다.

집에서 끓여 마시던 보리차를 냉장 고에서 바로 꺼내 마실 수 있도록 제 품화한 것이 주효했다. 보리곡자는 설 탕과 카페인 없이, 체내 흡수가 잘 돼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최적화했 다. 생수, 김치, 즉석밥 등과 함께 생활 필수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물 대용 콘셉트를 강화한 보리차 제품 라인업 과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생 수와 물 대용 차 음료 시장이 133000 억원에서 2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마케팅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